

麗代鮮初の 17字本 『法華經』 板本 研究

A Study on the 17-character Editions of *Beobhwagyeong*
Published during Goryeo Period and Early Joseon Period

송 일 기 (Song, Il-Gie)*

정 왕 근 (Jung, Wang-Kun)**

◁ 목 차 ▷

- | | |
|------------------|-----------------|
| 1. 緒言 | 4. 17字本の 書誌의 特徴 |
| 2. 麗代鮮初の 法華經 板本 | 4.1 板行數 |
| 3. 麗代鮮初の 17字本 系統 | 4.2 板首題 |
| 3.1 國內 獨自板本 | 5. 結言 |
| 3.2 宋板 覆刻板本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초기 사이에 간행된 법화경 가운데 17자본을 대상으로 그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 글이다. 해당시기에 간행된 법화경 판본은 모두 23종이 현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7자본이 가장 많은 6종으로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7자본을 대상으로 형태 서지학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간행한 판본이 2종이며, 송판본을 모본으로 복각 또는 번각한 송판계통이 4종으로 파악되었다. 고려에서 선초 사이에 간행된 법화경 판본 중 17자본을 대상으로 행자수 및 판수제 형식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판본의 유형과 계통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별 기준을 참고하게 되면 이 시대에 간행된 판본의 분류와 간년 추정에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要語: 『妙法蓮華經』, 『法華經』, 고려본, 송판본, 행자수, 판수제, 신송, 견성암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서지학전공)(wissenschaft@hanmail.net)

접수일: 2014년 9월 15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8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orm characteristics of the 17-character editions of *Beobhwagyeong* (the Sutra of the Lotus, 法華經) published during Goryeo Period and early Joseon Period.

There are 23 different *Beobhwagyeong* editions during the period. Among them, the 17-character editions were the most by 6 editions, 26%.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form and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17-character editions, 2 editions were independently published in Korea while 4 editions were Song (宋) editions, which were the remaking or republishing of the Song (宋) edition.

It was possible to suggest a standard to identify the type and line of the editions by analyzing 'the number of character in a line' and 'the head title describing the detail of the edition' of the 17-character editions published during Goryeo Period and early Joseon Period.

It is hoped that the identification standard suggested in this study would be a help for the estimating of published year and classification of edition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Key words: *Myobeob-yeonhwagyeong*(妙法蓮華經, saddharma-pundari-ka-sutra), *Beobhwagyeong*, Goryeo edition, Song edition, number of character in a line, head title describing the detail of the edition, Shin Chong(信聰), Gyeonseongam(見性菴)

1. 緒 言

이 연구는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초기 사이에 간행된 『妙法蓮華經』(이하 법화경으로 약칭) 가운데 17자본을 대상으로 그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판본 감정의 기준을 제시한 글이다. 동아시아에서 이른바 법화경은 姚秦의 구마라집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된 한역본이 크게 유행되어 수많은 刊寫本이 널리 유통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근래 중국에서도 오대 또는 북송초기 판본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고, 또한 이 무렵에 고려 초기에 간행된 고판본이 발견되고 있어 법화경 판본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송시대 11세기에 들어와서는 더욱 다양한 형식의 법화경 판본이 간행되고 있는데, 심지어 杭州 등지에서는 개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사사로이 간행한 방각본도 등장할 정도로 활발하게 보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초기 고판본에서 볼 수 없는 道宣이 지은 <弘傳序>가 수록되거나 권말에 音義가 부기되는 등 다양한 판본이 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국 송대에서 간행된 법화경은 당시 불교국가를 지향하였던 고려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그대로 복각하거나 약간 변형하여 개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지금에도 당시 고려에서 간행된 다양한 형태의 법화경 판본이 현전하고 있으며, 단순히 字數로만 구분하여도 8유형의 23종에 이르는 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 간행된 다양한 종류의 판본들은 이미 세월이 오래되었고, 그 사이 수많은 재난과 병란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인멸되었거나 훼손된 상태이다. 그리하여 현존본 가운데 법화경 전 7권이 온전한 상태로 수습되거나 전래된 판본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한편 조선 초기에는 왕실 및 개인적 발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간행한 다양한 판본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이러한 독자적 계통을 형성하는 판본 계통으로는 성달생이 정서하여 개판한 안심사본을 비롯하여 초주갑인자 및 을해자로 간인한 금속활자본과 정희왕후가 발원하여 간행한 대자본을 저본으로 전국의 사찰에서 복각한 엄청난 분량의 판본들이 현전하고 있다.¹⁾

이러한 까닭에 개인이나 사찰, 그리고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은 물론 간혹 불상의 불복에서 수습되는 복장본에 이르기 까지 판본의 유형이나 특징을 식별하기가 여간 곤란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하여 필자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법화경 판본을 모두 조사하여 판본의 선후 계통을 밝히고 그 주요한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식별의 기준점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고려에서 선조사이에 간행된 다양한 판본 가운데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전존본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경의 기준이 되고 있는 17자본을 대상으로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여 판본을 감정하는데 일정한 기준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麗代鮮初의 法華經 板本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妙法蓮華經』은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으로 풀이되며, 일반적으로 ‘法華經’으로 통칭되고 있다. 본경의 성립 연대는 다른 대승경전과 같이 명확치 않으나, 대체로 기원후 2세기 중엽까지 소품 단위로 결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인도와 서역 등지에서 만들어진 법화경은 불교의 동진과 더불어 여러 구법승에 의해서 인도의 서북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전래되었다. 전래 초기 단계에는 현재와 같은 27품 내지 28품의 완전한 경전이 일시에 입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서역 승려나 중국의 구법 스님에 의해 소품 단위로 전래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전래과정을 거쳐 법화경은 중국에서 구마라집 등에 의해 여섯 차례 漢譯되었으나, 그 중 3종만 남아 있다.

이 3종의 한역본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번역본은 鳩摩羅什이 406년에 한문으로 번역한 7권본이다. 구마라집의 한역본은 그 문체가 가장 간결하고 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寫經과 板經의 대

1) 조선 사찰본에 대해서는 필자의 지도로 조선시대 전국 사찰에서 간행된 법화경 판본을 조사 연구한 박사학위논문이 참고가 된다(鄭王根, “朝鮮時代『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2012. 8), 1-275).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법화경 또한 대부분 이 鳩譯本을 입수하여 刊寫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사 제작된 최고본 법화경은 평양시 내성구역 안학동에서 출토된 유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고구려 후기에 백지에 金泥로 쓴 사경으로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다.²⁾ 다음으로 통일신라 9세기 무렵에 조성된 석경본의 일부가 전래되고 있는데, 이 석경 유물은 1966년 경주 남산의 昌林寺址에서 출토되어 동국대박물관 등에 모두 23점이 보존되어 있다.³⁾

이후 고려 초기 10세기에 들어서면서 8세기 무렵에 발명된 목판인쇄기술의 발달로 목판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근래 10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법화경이 영광의 불갑사에서 발견되어 크게 주목된 바 있었다.⁴⁾ 또한 지난 1978년 중국의 소주 서광사탑에서 북송초기에 간행된 소자본 법화경도 출현하여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⁵⁾ 이밖에도 근래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발굴된 송판본과 거란본 또는 오대본 등이 간헐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법화경 판본 연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10세기부터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법화경 판본들이 간행되었으며, 고려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판본들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성달생 등이 직접 등재본을 정서하여 개관한 독자적 판본들이 전국 사찰을 중심으로 널리 유통하였으며, 그 외에 조선전기 왕실에서는 공덕을 목적으로 간행된 판본들이 일부 현전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의 독자적 판본을 제외하고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초기 사이에 간행된 판본들의 현전본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략 아래의 <표 1>과 같다.

2) 이 고구려 법화경 金字寫經이 지난 2002년 12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특별전에 출품된 적이 있으나, 과연 이 자료가 고구려시대에 제작된 것인지의 자못 의문이 든다(특별기획전 고구려(서울: 동추진위원회, 2002), 186-187).

3) 장충식, “新羅 法華經 石經의 復元,” 『佛敎美術』 第16輯(2000), 30-31.

4) 宋日基, “靈光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 卷3의 刊年問題,” 『書誌學研究』 48(2011. 6), 83-130.

5) 宋日基, “蘇州 瑞光寺塔 出土 北宋初期 佛敎文獻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5권 제1호(2014. 3), 92-95.

<표 1> 고려-선조 간행의 법화경 현전본 현황

區分	板種	現存卷次	所藏處	板刻年	板首題	裝潢	備考
14 자 본	A	권1	연세대	12C	一 二	線裝	弘傳序, 首尾缺落
	B	권1	연세대	15C	미상	線裝	卷末缺落
	C	권5-7	호림박물관	1451	法五 二	線裝	景泰2年 希忍跋(寶1107)
15 자 본	A	권1	기림사	12-13C	妙一 二	折帖	卷末缺落(寶959)
		권2	공인박물관	12-13C	妙二 二	折帖	卷首缺落
		권5	김민영	12-13C	妙五 二	折帖	首尾完全
	B	권2	문제봉	11-12C	二 二(下)	線裝	卷末缺落
		권3-5	기림사	11-12C	三 二(下)	折帖	部分缺落
		권7	기림사	11-12C	七 二(下)	折帖	卷末缺落(寶959)
	C	권1-3	수덕사	13-14C	一卷 二	線裝	首尾缺落
16 자 본	A	권1-7 권3,6,7	백련암 기림사	1236	法華經卷一 二	線裝 折帖	丙申年12月15日 鄭奮誌(寶959)
	B	권1-7	삼성미술관	1286	一一九十五	線裝	變相, 至元23年丙戌5月日 道人成敏誌(寶693)
	C	권1-7 권2,3 권4-7	연세대 공인박물관 기림사	1370	一一九十五 刻手	線裝 折帖 線裝	海東...郭有楨...歲在庚戌臘月上旬日誌 變相(寶959)
	D	권1-2	동학사	13C	法華一 二	線裝	卷2 이하 譯者 표시
17 자 본	A	권3	불갑사	10C	三 二	卷子	卷末缺落, 建자 避諱(寶1470)
	B	권1-7	기림사	13C	二-十四	折帖	卷末缺落, 變相
		권6	수국사	12C	七十九-九十四	折帖	首尾完全(寶1580)
		권1,7	호림박, 송일기	13C	九十五-百七	折帖	變相, 首尾完全, 卷首缺落(송)
	C	권6	기림사	13C	法六 二 刻手名	折帖	首尾完全(寶959)
	D	권2	동학사	13C	十六-二十二	折帖	卷首缺落
		권4-7	연세대, 김민영	14C	四十五-九十九	線裝	首尾缺落
	E	권1,2,5	공인박물관	1459	卷一 一	折帖	首尾完全
		권1-2 권3-7	김민영 연세대	1459	卷一 一	線裝	首尾完全, 廣平大君申氏發願...見性菴 開刊...天順3年金守溫跋
	F	권1	목야박물관	1401	法華一 二	折帖	信聰書(寶1145) *능엄경(寶759) 참고
권2		통도사	1401	法華二 二	折帖	信聰書(寶1194)	
권3		삼성미술관	1401	法華三 二	折帖	信聰書(寶968)	
20 자 본	A	권4	송일기	1240	法四 二	折帖	首尾缺落
		권5	기림사	1240	法五 二	折帖	首尾完全
		권6-7	관문사	1240	法六 二	折帖	庚子(高宗27年)崔怡跋(寶962)
		권7	유상옥	1240	法七 二	折帖	庚子(高宗27年)崔怡跋(寶977)
	B	권1-3	공인박물관	15C	法一 二	線裝	玃岐刀(變相), 音釋, 化主信珠

區分	板種	現存卷次	所藏處	板刻年	板首題	裝潢	備考
24자본	A	권1-7	관문사	1382	法一 一 刻手名	線裝	靑龍壬戌春三月 李穡跋
	B	권1-3 권4-7	불갑사 공인, 동학사	1383	法四 一	線裝	洪武癸亥4月日平壤道法弘山 白蓮庵刊, 李穡跋
	C	권1-7 권1-3 권4-7	상원사 국립박물관 관문사	1399	法一 一 刻手名	線裝	建文元年己卯七月 南在跋(寶793) 寶1081
27자본		권1-6	자운사	12C	法華 一一二十六 刻手名	折帖	紹興29(1159)年本 覆刻, 變相
31자본		권1-7	상원사	1404	蓮 一一二十五 刻手名	折帖	永樂2年甲申10月日誌 同願 惠 居[能](寶793), 變相

이상은 고려시대에서 선초 사이에 간행된 다양한 판본들의 현전본 현황을 해당 권차와 소장처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들 판본은 대부분 이미 그 가치를 평가받아 국가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그 중에는 아직까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판본도 없지 않다.⁶⁾ 이들 판본을 대상으로 한 판의 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한 종수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고려-선초 법화경의 현전본 분포현황

구분	14자본	15자본	16자본	17자본	20자본	24자본	27자본	31자본
종수	3종	3종	4종	6종	2종	3종	1종	1종
비율	13%	13%	18%	26%	9%	13%	4%	4%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 해당한 법화경 중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고 있는 판본은 17자본으로 전체 23종 가운데 6종에 이르고 있어 전체 26%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불경은 17자본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그밖에도 다양한 판본이 현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법화경 판본에는 14자본 중 현재 학계에 전혀 소개되지 않은 대자로 쓰여진 연세대 소장본이 주목된다. 이 판본은 법화경 권1로 권수 일부가 결락되어 아쉬움을 주고 있으나, 명필가가 한 행에 14자를 배자하여 아주 큰 대자로 판하본을 써서 판각한 것으로 雄揮한 필력이 느껴진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불경의 기준이 되고 가장 많은 종수를 보이는 17자본을 대상으로 형태적 특징과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대략 아래의 <표 3>과 같은 현상이 보이고 있다.

<표 3> 법화경 17자본의 형태서지적 특징

구분	유형	卷次	板刻年	卷首題	譯者名	板行數	板首題	裝潢	주요특징	조사대상본
國內獨自板	I	권3	10C	1행	무	26행	三 二	卷子	避諱(建), 寫經體字	불갑사
	II	권1	1401	3행	유	36행	法華一 二	折帖	信聰書, 紺紙表紙, 變相, 弘傳序, 6折	목아박물관
		권2	1401	3행	유	36행	法華二 二	折帖	信聰書	통도사
		권3	1401	3행	유	36행	法華三 二	折帖	信聰書	삼성미술관
宋板覆刻板	I	권1-7	12C	3행	유	42행	二-百七	折帖	變相, 弘傳序, 7折	기림사
		권6	12C	3행	유	42행	七十九-九十四	折帖	紺紙表紙, 音義	수국사
		권1,7	13C	3행	유	42행	九十五-百七	折帖	紺紙表紙, 變相, 弘傳序	호림박물관 송일기
	II	권2	13C	3행	유	42행	十六-二十二	折帖	標點, 7折	동학사
		권4-7	14C	3행	유	42행	四十五-九十九	線裝	標點	연세대
	III	권6	13C	3행	유	25행	法六 二	折帖	刻手名, 5折	기림사
	IV	권1-2	1459	3행	유	25행	卷一 一	線裝	標點, 弘傳序, 5折	김민영
		권1,2,5	1459	3행	유	25행	卷五 一	折帖	標點	공인박물관
		권3-7	1459	3행	유	25행	卷三 一	線裝	標點, 天順3年見性菴開刊, 金守溫跋	연세대

이 글에서는 위의 <표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17자본을 대상으로 크게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간행한 판본과 송판본을 저본으로 번각 또는 복각한 판본으로 그 계통을 구분하고, 아래에서 다시 개별 판본별로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3. 麗代鮮初の 17字本 系統

3.1 國內 獨自板本

3.1.1 제1유형-26行本(佛甲寺本)

이 고판본 법화경은 1998년 전라남도 영광군 모악산 불갑사 경내의 명부전 十王像에서 낱장 상태로 수습된 이후 보존처리가 되어 현재 불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불갑사본 법화경(권3)은 본래 권자본 형태이었으나, 발견 당시 3장 단위가 4구와 2장 단위가 1구에서 분리된 상태로 모두 14장의 분량을 수습하였다. 이는 장1에서부터 장14에 해당되어 중간에 빠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장14 이후 2장에 해당되는 분량이 逸失되었다.

이처럼 복장에서 수습되어 별도의 표지가 없는 상태로 권수에 변상도나 서문이 없다. 첫 장의 권두서명에는 “妙法蓮華經藥草喻品第五 三”이 한 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여야할 ‘譯者表示’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다른 고려본과는 권수제 형식이 매우 다르다. 다만 이 불경이 ‘妙法蓮華經’이란 사실만은 經題의 의해 분명히 확인되며, 또한 끝부분의 ‘三’이라는 숫자가 바로 권차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권말 부분이 결락되어 있어 刊記가 없으나, 권수제의 기재 방식만은 사경과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송판대장경 간행 이전의 書名法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러한 특징은 중국 응현의 불공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거란본 법화경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갑사본 법화경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邊欄은 상하단변이며, 界線은 보이지 않아 전체적으로 매우 간결한 느낌을 준다. 각 장의 크기는 대략 51.5×27.9cm로 계측되었으며, 한 장은 26행씩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장의 粘連 부분에는 후대 판본의 板首題에서 보이는 ‘法’, ‘法華’, ‘法華經’ 등의 약서명이 없이, 단순히 ‘三 二’라는 권차 및 장차의 표시만 간략하게 기입되어 있다. 이는 본문의 권·장차 식별의 의미보다는 사경의 배면에 기재하는 방식처럼 단순

히 목판의 순차적 배열이나 인출 후 순서에 따른 점련 작업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고안된 초기 단계의 판수제 형식으로 이해된다.

불갑사본에서 권수제 형식과 더불어 가장 주목되는 점은 字體의 특징이 자못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12세기 전후에 간행된 고려본의 서체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예리하고 俊勁함이 보이고 있어, 오히려 10세기 전반에 건립된 고려 초기의 塔碑에 보이는 자체와 흡사하다. 자체의 특징이 전형적인 구양순체이나, 그 예리한 필의는 오히려 구양통의 서체에 근사하다. 이러한 특징은 수·당 사경에서는 흔히 볼 수 없으며, 라말 여초에 유행한 서체이다. 경문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能·勝·願·正·足·定·因·隱’자 등에서는 다분히 사경체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8세기 전반의 판본으로 추정되는 『無垢淨光經』에서도 동일한 특징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불갑사본 범화경의 자체는 羅末에서 고려 초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여러 고승 탑비의 자체와도 무관치 않은데, 특히 당시의 대표적 서사자인 李桓樞, 仇(具)足達, 柳勳律 등의 서체가 주목된다.

한편 避諱는 경우에 따라 서적의 간행시기와 간행국가를 식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불갑사본 범화경에도 결획법에 의한 避諱가 보이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그것은 현전하는 14장 중에 장6의 5행 5자의 단 한곳에서 고려 태조 王建의 이름자의 兼避諱字인 ‘捷’자의 아래 받침에서 결획이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위치 이후로 동일자가 두 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첫 번째 출현 글자에서만 피휘 현상이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2대왕 惠宗의 이름자인 ‘武’자와 3대왕 定宗의 이름자인 ‘堯’자 등은 물론 이후 역대 왕들에서는 전혀 피휘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이 판본이 고려 태조의 재위 연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⁷⁾

이와 같이 불갑사본 범화경(권3)의 권수제 형식이 통일신라 755년에 사성된 <白紙墨書華嚴經> 사경과 동일하게 {經名+品名+品次, 卷次}의 형식으로 한 행

7) 이상의 내용은 필자의 논문에서 요약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은 전문을 참고하시길 바란다(宋日基, “靈光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 卷3의 刊年 問題,” 『書誌學研究』 제48집(2011. 6), 83-130.)

에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제 다음 행에 ‘譯者名’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필자가 최근에 발표한 開運寺 복장본 화엄경(권33)에도 이와 동일한 권수제 형식을 보이고 있어 불갑사본이 10세기 중엽 무렵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⁸⁾

3.1.2 제2유형-36行本(信聰書本)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간행된 판본은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거의 그 간행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판본은 조선 초기 태상왕이 신충대사로 하여금 대자로 『法華經』의 내용을 직접 정서하게 하여 친히 살펴보고 이를 판각하여 널리 유통할 것을 명하여 비로소 간행을 보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法華經』은 모두 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충 필서본은 이 중 권1-3에 이르는 3권만이 유일하게 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전본 중 권1은 목아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보물 1145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권2는 보물 1194호로 지정되어 통도사에 보존되어 있으며, 권3은 보물 968호로 지정되어 삼성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목아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권1은 절첩장 형태로 장황되어 있으며, 표지는 쪽물로 염색한 감지로 중앙의 제첩에 ‘妙法蓮華經’이란 經題가 금니로 쓰여 있어 왕실에서 어람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권1과는 달리 권2와 3은 원형의 표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장에 시납할 때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수에는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어 다른 판본에 비해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변상도는 우측면에 護法善神像을 시작으로 靈山會上圖가 펼쳐져 있다. 화풍은 1286년에 판각된 고려본(보물693호)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여백에는 雲紋과 散花 장면으로 채워져 있고 하단에 난간이 배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약간의 변형을 가져 온 것으로 보인다.⁹⁾ 변상도에 이어 종남산 道宣이 지은 弘傳序는 수록되어 있으나, 及南의 要解序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어

8) 宋日基, “開運寺本 晉本華嚴經 卷33의 書誌의 研究,” 『書誌學研究』 51(2012), 368-369.

9) 朴桃花, “朝鮮 前半期 佛經板畫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7), 47-48.

조선 초기 판본에는 고려본의 편성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권수의 변상도와 서문에 이어 비로소 권1의 경계가 보이는데, 권수제는 경제와 역자, 그리고 품제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장은 6절씩 접혀 있고 1절은 6행씩 배열되어 있어 한 장은 모두 36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의 경문은 전체 17장으로 점련되어 있으며, 경문의 일부에는 세필로 표점과 구결 등이 표시되어 있다. 각장의 중간부분에 ‘法華一 二’이라는 판수제가 보이고 있는데, 板首題는 위쪽에 약서명과 권차가 그리고 아래로 장차가 표기되어 있다. 권말에 있는 경제는 별행으로 처리하지 않고 마지막 행 아래에 연이어 기재되어 있다. 뒤표지의 내면지에는 시주자가 묵서되어 있고 그 끝에 木印이 찍혀 있다.

이 판본은 1401년 태상왕의 하명으로 信聰 대사가 대자로 정서한 <능엄경>을 저본으로 판각한 판본(보물759호)이 현전하고 있어 간행시기를 그와 같은 무렵으로 보아 오고 있다.¹⁰⁾ 당시는 원나라 조맹부의 송설체가 크게 유행하던 시기이나 정서본을 쓴 신충의 서체는 이와는 달리 오히려 불교가 번성했던 당나라의 대표적 서예가인 유공권(778-865)의 서풍과 흡사한 점이 없지 않다. 유공권은 <금강경> 등 불교와 관련된 작품이 남아 있는데, 다만 신충이 쓴 『法華經』은 약간 좌우로 늘려 쓴 듯한 서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3.2 宋板 覆刻板本

3.2.1 제1유형-42行本

3.2.1.1 無標點本

고려시대 간행된 『法華經』 판본은 송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송판계통의 판본

10) 조선 태종 1년(1401) 信聰이 정서하여 개판한 <능엄경> 판본에는 권10의 말미에 權近이 지은 다음과 같은 “右善本大字楞嚴板本, 我太上王殿下, 命書御覽, 乃命鉞梓, 以廣其傳者也.” 발문 내용이 수록되어 간행 사실을 알 수 있다. 발문의 말미에는 書者인 信聰과 明晷 등 10인의 刻手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 고려시대 조성된 불상의 불복에서 수습된 불교전적 가운데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판본이 간혹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판본 중에는 종이의 특성 때문에 송판본 혹은 원판본과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다.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불에서 수습한 다양한 『法華經』 판본 중에는 당시 도난을 맞아 현재까지 지정되지 못한 전적류에 지질의 특성상 송판본과 흡사한 불경도 보이고 있다.

그런데 17자본 북송판으로 가장 오래된 판본이 산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¹¹⁾ 이와 비교해 보면 대체로 권수의 홍전서 끝부분에 간행사실이 밝혀져 있다. 물론 이 산동박물관본은 일반에 판매를 목적으로 1068년 杭州晏家에서 간행한 방각본에 해당되는 불경이다. 그 외에 현전하는 송판본은 대부분 표점이 들어 있는 판본들이다. 비록 기림사본의 지질이 다른 고려본과는 다르게 특이하나 이와 동일한 판본이 창원 봉림사에 권1 잔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간본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또한 기림사와 봉림사 외에 이와 동일 계통의 판본이 수국사에서 권6의 1첩이 발견된 바 있으며, 이 보다 후대본으로 보이는 권1의 1첩이 호림박물관에, 그리고 권7의 1첩은 필자가 소장하고 있다. 기림사본은 권1에서 권7에 이르는 잔편이 불복에서 수습되었는데, 특히 권수에는 변상도와 도선의 홍전서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변상도는 끝부분 일부만 남아 있어 전체 모습을 알 수 없으나, 이와 거의 동일한 변상도가 있는 판본이 호림박물관본이다. 이들 판본의 모본으로 보이는 송판본이 일본 大東急記念文庫에 소장되어 있는데,¹²⁾ 고려에서 복각하면서 변상도의 말미에 있는 송대 仁宗의 木記를 잘라내고 앞쪽에 護法善神像을 배치하여 6면의 구도를 맞추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

서문 다음에 권수제가 보이고 있는데, 그 형식은 {經題+譯者+品題}의 3행으로

11) 中國國家圖書館 編, 『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第2批』 第2冊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0), 129.

12) 『東アジアの仏たち』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996), 203.

13) 이러한 형식의 변상도는 고려사경에도 계승되어 일본의 佐賀縣 鍋島報效會에 소장되어 있는 충숙왕 복위원년(1332)에 도인 玄哲의 발원으로 조성된 『법화경사경』에서 보이고 있다(『東アジアの仏たち』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996, 214).

구성되어 있다. 각장은 7절씩 접혀 있고 1절은 6행씩 배열되어 있어 한 장은 모두 42행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판본들과 구분이 된다. 각장의 중간부분에 약서명과 권차 등 일반적인 판수제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아래로 권차에 관계없이 張次만 연속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수국사본의 권말에는 권5-7의 3권에 이르는 音義가 기재되어 있으나, 필자 소장본의 권7의 말미에는 간행에 관련된 아무런 기록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판본은 북송판과 지질 등의 특징으로 보아 대략 12-13세기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림사본과 봉림사본의 경문에는 일부에 세필로 구결이 묵서되어 있다.

이처럼 한 장에 42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본은 중국 남송대 12세기 중반에 간행된 大東急本을 저본으로 고려에서 기림사본과 수국사본이 거의 같은 시기에 복각되었으며, 이후 이를 다시 복각한 판본이 호림박물관본으로 하나의 판본계통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3.2.1.2 有標點本

이 판본은 앞에서 살펴본 표점이 없는 판본과는 달리 경문 사이에 원형의 표점이 표시되어 있어 구분이 된다. 표점본은 연세대도서관에 권4-7의 1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근래 동학사 불상에서 권2의 1첩이 수습된 바 있다. 이들 판본은 무표점본과는 판식적 특징은 완전히 동일하나 단지 표점의 유무로 식별할 수 있다. 연세대본은 선장 형태로 장책되어 후쇄본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동학사본은 절첩장으로 되어 있어 유일한 고려본으로 판단된다. 이들 판본의 동일 계통의 저본으로 보이는 송판본이 현재 상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체의 서법이 조금 다르다.¹⁴⁾

14) 中國國家圖書館 編, 『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 第2批』第2冊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0), 127.

3.2.2 제2유형-25행본

3.2.2.1 無標點本

고려시대 한 판이 25행으로 배열된 17자본은 보물 959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는 기림사 복장전적 중에 포함된 『法華經』 권6(지정순서23)이 유일한 판본으로 조사되었다. 이 기림사본은 권6에 해당하는 1첩으로 절첩장 형태로 장책되어 있으며, 전후 표지가 없는 상태로 수습되었다가 근래 새로 紺紙로 개장하였다. 그러나 권수에는 다행히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변상도의 四周는 화문으로 장엄되어 있고 앞쪽에 ‘妙法蓮華經第六’이 기재되어 있어 특이한 형식인데, 주로 고려사경에서 보이는 형식이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守洪刀’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守洪이 변상도를 새긴 각수임을 알 수 있다. 이 판경 변상도는 약간의 변용을 거쳐 이후 사경 변상도로 차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변상도 다음에 권수제가 보이고 있으며, 경제 아래에 각수명이 기재되어 있다. 권6의 전체 경문은 모두 17장으로 점련되어 있으며, 각 장은 5절씩 접고 접은 한 면에는 5행씩 배열하여 모두 25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중간부분에는 ‘法六二’이라는 판수제가 보이고 있고, 그 아래에 각수명이 새겨져 있다. 판수제는 약서명을 ‘法’ 단자로 표기하고 이어 아래로 권차와 장차가 기재되어 있다. 권말제 아래로 ‘施主金氏夫人’과 ‘棟梁比丘永巨’이란 목서 기록이 보이고 있어 인출 시에 시주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지닌 판본의 모본으로 보이는 남송대의 판본이 일본 경도의 栗棘庵에 전 7첩이 온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상도의 전체적인 형식이 매우 흡사하며, 좌측 하단에 ‘陳忠’이란 각수명이 보이고 있는데, 고려본에 비해 매우 정교하게 판각되었음을 볼 수 있다.¹⁵⁾ 또한 다른 권차의 변상도에는 ‘陳高’라는 각수명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남송 紹興연간에 각판 작업에 활약했던 진씨 집안의 유명한 각수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¹⁶⁾

15) 『東アジアの仏たち』(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996), 206.

3.2.2.2 有標點本

이 판본은 조선 세조 5년(1459)에 廣平大君 부인 申씨의 발원으로 원찰인 見性菴에서 開刊된 불경이다. 광평대군은 조선 세종의 다섯째 아들로 이름은 璵이며, 申自守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20세의 나이로 요절하여 시호는 章懿公이다. 또한 불경을 간행한 견성암은 신라시대 창건된 이래 여러 차례 중창을 거쳐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봉은사로 개명한 왕실의 능침 사찰로 알려져 있다.

이때 간행된 판본이 공인박물관에 권1, 2, 5의 3첩의 절첩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선장 형태로 장책된 판본 중에 권1,2의 1책이 김민영의 장서로 알려져 있고, 연세대도서관에는 권3-7의 2책이 소장되어 있다. 공인박물관 소장본은 절첩장 형태로 장책되어 있는데, 표지가 모두 근래 새로 개장된 것으로 보아 불복에서 수습한 복장본으로 보인다. 권1의 권수에는 도선의 흥전서가 수록되어 있으나, 각 권의 권수에 변상도는 없는 상태이다. 서문 다음에 권수제가 보이고 있는데, 그 형식은 {經題+譯者+品題} 형식의 3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문에는 독경이 편리하도록 圈點이 달려 있으며, 僻字에 자음이 부기되어 있어 다른 판본들과 쉽게 구별된다. 각 장의 경문 사이에 ‘卷一 二’라는 판수제가 기재되어 있는데, 판수제의 형식을 살펴보면 약서명은 생략되어 있고 권차와 장차만 기입되어 있다. 공인박물관 소장의 절첩장은 비교적 후박한 종지로 인출되었으나, 이에 비해 김민영본과 연세대본은 아주 얇은 종지로 인출되어 선장 형태로 裝潢하였다.

공인박물관 소장본 권1의 말미에는 세종의 아들인 孝寧大君·臨瀛大君·永膺大君 등을 비롯하여 師傅 申允元 등 다수의 시주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시주자 가운데는 광평대군의 부인 신씨의 부친인 申自守를 비롯하여 사부 신윤원, 府丞 申允宗, 少尹 申允甫, 倉使 申允底, 監察 申允寬 등 같은 항렬의 ‘允’자 돌림의 친족들이 다수 가담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개판과 관련된 匠人의 참여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造板을 담당한 스님이 3인, 校監이 2인, 刻手가 18인, 正板이 2인, 着漆이 1인, 爐冶匠이 2인, 執饌

16) 葉德輝 著, 박철상 옮김, 『書林清話』 (서울: 푸른역사, 2011), 123-151.

이 7인 등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연세대본 권7의 말미에 김수온이 1459년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이 범화경의 간행 배경 및 연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 발문에 따르면 광평대군 부인 신씨가 먼저 죽은 광평대군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당시 널리 통용되고 있는 戒環의 주소본을 대신하여 주해가 없고 자체가 해정한 송판본을 1질을 구해서 그의 원찰인 견성암에서 天順 3년인 1459년 4월에 판각에 착수하여 불과 2개월 후인 6월에 완성을 보게 되어 여기에 김수온의 발문을 수록하여 7월에 간행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¹⁷⁾

광평대군 부인이 1459년에 견성암에서 『法華經』을 간행한 이후 몇 해 동안 견성암을 크게 중창하고 이곳에 法華道場을 설치하여 죽은 세종과 소헌왕후를 비롯하여 광평대군과 先母 王씨(妙貞)의 극락왕생을 위해 무려 1천여명이 참석하여 薦度齋를 봉행한 사실이 보이고 있다.¹⁸⁾

이때 간행된 견성암본의 모본으로 추정되는 북송판이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를 조금 수정하여 번각한 남송판 방각본이 북경의 국가도서관에 남아 있다. 북송판은 송나라 皇祐 3년(1051)에 夏竦이 重校한 사실을 지은 서문을 권수에 수록하여 간행하였는데, 서문에서 오대십국시대를 거치는 동안 경문의 자음·句讀·方言에 오류가 많아 여러 이본을 참고하여 재차 교정을 하게 되었

17) 金守溫 跋文: 法華一經, 有單有註, 我國所行, 率皆戒環疏, 而單法華, 則止於大藏之餘爾也. 廣平大君夫人申氏, 得內出唐本無註者一本, 字劃甚楷, 大小適宜, 於是爲主上殿下萬萬歲, 中宮殿下萬萬歲, 世子邸下千春之願, 開刊於見性菴, 以天順三年四月有日肇功, 其年六月告訖, 嗚呼, 三周說法, 記別人天, 乃大乘最上之教也. 持一句, 念一偈, 尙且獲福無邊, 況雕造全部, 模印之. 廣乎. 蓋夫人法施之心, 無窮, 故其願力之就, 亦無盡. 既欲祝聖壽於無疆, 又欲世宗大王·昭憲王后仙駕, 證佛知見, 成無上果, 懿敬世子·廣平大君章懿公·三韓國夫人王氏妙貞·撫安君章惠公之靈, 得無生忍, 而生極樂, 其立願之弘益, 有以見其無窮矣. 至若諸本考異則, 資於大禪師學悅云. 是年秋七月初五日嘉靖大夫同知中樞院事臣金守溫奉教撰.

18) 金守溫, 『拭疣集』卷2, <記類>, 見性菴靈應記. “廣平大君, 迺世宗第五子, 而我主上殿下同母弟也. 年旣冠, 不幸早世. 夫人永嘉申氏, 哀悼罔極, 及旣葬則益無所依歸, 就塋域之側, 大建伽藍, 歲寓僧三四百指, 晨夕薦廣平君之靈, 以願生於淨土, 此見性菴之所由作也. 天順八年甲申夏四月十四日乙卯, 夫人爲世宗大王, 昭憲王后, 超昇極樂, 先母夫人王氏, 廣平大君, 皆得涅槃之願, 邀苾芻五十員爲上堂, 請圓通智大師爲講主, 設法華道場於是寺, 于時大檀越, 則有若貞懿公主, 有若臨瀛大君及夫人, 有若永膺大君及夫人, 各以輿衛僕從而來詣, 其信善四衆, 又無慮千有餘人.”

으며, 또한 당시의 불경이 권축장으로 장책되어 독경에 불편하므로 간행 시에 이를 折帖裝으로 裝潢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보이고 있다.¹⁹⁾ 이 북송판은 쉽게 독경할 수 있도록 경문에 圈點이 표시되어 있고 難讀字나 僻字 아래에 자음이 부기되어 있다.

이후 남송에서도 이 북송판을 저본으로 약간씩 변형된 방각본과 사각본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조금 수정하여 남송 景定 2년(1261)에 建安 范生에서 陸道源이 간행한 남송판이 남아 있는데, 북송판에 비해 標點의 위치와 字音의 유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⁰⁾ 이렇듯 표점과 자음의 수정된 양상과 字體의 특징으로 보아 조선에서 광평대군부인 신씨가 간행한 견성암본은 남송의 建安本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문의 자체는 남송의 建安本이 구양순체의 특징을 잘 보이고 있으나, 견성암본은 시기적으로 송설체가 유행하던 조선 전기에 간행되었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구양순체의 예리함보다는 송설체의 유려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견성암본은 建安本을 복각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정서하여 개판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17字本の 書誌的 特徵

4.1 板行數

4.1.1 獨自板本

고판본을 감정하는 방법 가운데 행수를 파악하는 것은 판본의 유형과 간행시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판행수는 경판 한 판에 수록된 행수를 말한다.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 사이에 간행된 법화경 판본 중에 17자본은 대략 4가지

19) 『大觀：宋板圖書特展』(臺北：古宮博物院, 2006), 208-215.

20) 中國國家圖書館 編, 『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第2批』第2冊(北京：國家圖書館出版社, 2010), 128.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가운데 26행본과 36행본은 각각 1종씩 발견되었는데, 모두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간행된 고판본이다. 26행본은 영광 불갑사 복장본으로 권수제가 1행으로 되어 있어 10세기 무렵에 간행된 최고의 판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 장은 26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권수제면만은 23행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권자본의 경우 한 판에 배열된 행수가 26행에서 30행 사이의 판본은 11세기 이전에 간행된 판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로 보아, 비록 동일 불경은 아니지만 불갑사본 또한 이러한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¹⁾

그리고 조선 초기에 신충이 淨寫한 정서본을 바탕으로 개판한 판본 3점이 현전하고 있는데, 모두 개별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현전본은 전체 7권 중 권1-3의 3책만 전존하고 있어 간행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파악할 수 없으나, 같은 시기에 信聽이 정서한 판하본으로 판각한 <능엄경> 대자본이 현전하고 있어 간행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능엄경의 권말에 권근이 쓴 발문이 1401년에 작성되었으므로 『法華經』 또한 이를 전후한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신충서본은 한 판이 36행본으로 배열되어 있고 절첩장 형태로 장황되어 있는데, 조선 초기에 국내에서 간행된 독자적인 판본으로 완질을 갖추지 못하고도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희귀한 실정이다.

4.1.2 宋板系統

다음으로 송판 계통의 판본으로는 한 판이 42행본과 25행본으로 두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두 유형은 다시 표점[圈點]이 있고 없는 차이로 구분되고 있으며, 비교적 전래본은 많이 남아 있으나 완질본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판본을 식별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42행본은 한 장이 7절로 절첩되어 있는데, 1절에 6행씩 배열되어 전체 42행으로 구성된 판본이다. 이 42행본은 북송 11세기에 개판된 이래 크게 유행하였던 판본으로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신속히 전래된 이후 고려시

21) 宋日基, “開運寺本 阿彌陀佛 腹藏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47(2010), 51-52.

대 수차 인출되어 널리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전본 수량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으나, 실제 판종은 2-3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16자본 판본도 많이 현전하고 있기 때문에 감별에 혼란을 주고 있으나, 행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일정한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5행본은 한 장이 5절로 절첩되어 있으며, 1절은 5행씩 배열되어 전체 25행으로 구성된 판본이다. 현전본으로는 고려본 1종과 조선본 1종이 각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25행본 또한 경문 사이에 권점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다. 권점이 없고 판수제의 약칭이 ‘法’자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아래에 각수명이 기입되어 있으면 기림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본에 해당되며, 판수제에 약서명이 없이 단순히 권차를 의미하는 ‘卷’자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는 조선시대 견성암에서 간행된 판본에 해당된다. 권점의 유무를 제외하고 자체의 특징이 흡사해 보이나, 고려본에 비해 견성암본은 더욱 해정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法’자 등의 서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4.2 板首題

4.2.1 高麗本

고판본에 있어서 판수제는 해당 판본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 판본의 구분이나 판각시기를 추정하는데 일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시기의 연구 대상본은 판행수와 더불어 일정한 판수제 형식을 보이고 있어 판본을 식별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가장 최고의 판본인 26행본 불갑사본은 판수제가 대단히 단순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판본의 판수제는 ‘三 二’로 숫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본경을 의미하는 약서명은 빠져 있으며, 권차와 장차만 기입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후대 판본에서는 법화경을 상징하는 약칭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唐代의 사경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려시대 간행된 42행본에는 표점이 있고 없는 2종류의 판본이 12세

기부터 간행되어 고려후기까지 수차례 인출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수량이 남아 있다. 이 42행본은 송나라에서는 이미 11세기부터 간행되기 시작하여 이를 저본으로 약간씩 변형한 사각본과 방각본 등 다양한 판본이 유통되었다. 고려에서도 이러한 통행본 중 일부를 신속히 입수하여 번각 또는 복각하여 국내에 유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표점에 관계없이 2종류의 판본은 경문 사이에 전체 장수를 권차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 순서로 기재하고 있는데, 전체는 107장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5행본 중 고려본은 권6의 1책만이 유일하게 기림사 불상에서 수습되었다. 이 기림사본에는 권수에 사경과 유사한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고 판수제 아래에 각수명이 기입되어 있어 동일 유형의 다른 판본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판수제는 ‘法六 二’와 같은데, 그 형식은 {略書名+卷次+張次}순으로 기입되었다. 이 판본은 고려본 중 유일하게 법화경을 의미하는 약서명이 보이고 있다.

4.2.2 朝鮮本

조선전기에 간행된 『法華經』은 비교적 다양한 판본이 보이고 있다. 그 중 17자본의 판본은 단지 2종에 불과한데, 선조 1401년 무렵에 신충이 정서하여 간행된 36행본과 광평대군부인 신씨의 발원으로 1459년에 그의 원찰인 견성암에서 개관한 25행본이 현전하고 있다.

먼저 신충의 필서본은 신충이 정서본을 써서 개관한 독자적 판본으로 한 장이 36행본으로 각 장마다 6절로 절첩하여 장책되어 있으며, 그 중 4번째절에 판수제가 보이고 있다. 이 신충본의 판수제는 ‘法華一 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형식은 {약서명+권차+장차}순으로 기입되어 있어 온전한 기술방식이다. 판수제 ‘法華’라는 약서명은 법화경 17자본 중 유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5행본 중 견성암본 공인박물관과 연세대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2곳의 소장본을 합치면 전 7권의 완질 상태를 이루고 있어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공인본은 厚紙에 인출하여 절첩장 형태로 장책하였으며, 연세대본은

薄紙에 인경하여 선장으로 장황되어 있다. 그 중 연세대본 권3-4의 1책의 표지는 비단을 사용하여 장황하고 제첩에 경계를 묵서한 방식으로 보아 조선 왕실본의 전형이 잘 나타나 있다. 양본 모두 최고의 인경지를 사용하고 먹색이 선명하며 자획에 완결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판각 즉시 인출한 초쇄본으로 판단된다. 이 견성암본은 한 장에 25행씩 배열되어 있고 전체를 5절로 절첩하였는데, 판수제는 2번째折에 ‘卷一 一’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로 보아 그 형식은 {권차+장차}로만 구성되어 있고 약서명은 생략되어 있는 기술방식이다.

이상과 같이 17자본 범화경의 판수제의 기술방식을 살펴본 결과, 모두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체로 고판본에 해당하는 판본의 경우 문자가 없이 숫자로만 단순하게 표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기가 없는 불경의 시기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판수제의 기입 형식이 하나의 요소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結 言

이상에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사이에 간행된 범화경 판본 가운데 17자본을 중심으로 형태서지학적 특징을 고찰한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요약된다.

첫째, 麗代鮮初 사이에 간행된 범화경 판본은 모두 23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7자본이 가장 많은 6종으로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먼저 17자본의 6종을 대상으로 형태서지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간행한 판본이 2종으로 파악되었는데, 1종은 고려 초기에 간행된 고판본이고 다른 1종은 조선 태종 1년(1401) 무렵에 신종의 정서본을 바탕으로 간행된 판본으로 전 7권 중 3권만 현전하고 있다.

셋째, 또한 송판본을 모본으로 복각 또는 번각한 송판계통이 4종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들 4종의 판본 중에 경문 사이에 표점이 있는 표점본 2종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판본을 비교적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넷째, 전체 6종의 판본은 선장, 절첩장, 권자장 등 다양한 형태로 장황되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판본 계통을 구분할 수 없으나, 이를 경관 한 판에 수록된 행수를 실측해 보면 동일계통의 판본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17자본을 구분해 보면, 25행본이 2종, 26행본이 1종, 36행본이 1종, 42행본이 2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있는데, 국내 독자판본은 26행과 36행으로 되어 있고 송판계통은 42행과 25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17자본 6종의 판수제를 분석한 결과, 최고판본인 26행본과 25행본 중 조선 건성암본의 경우 단순히 숫자로만 권차와 장차가 기재되어 있으며, 42행본은 전체 장차만 권1에서부터 권7까지 일련 번호로 기입되어 있다. 이에 비해 25행본 중 기림사 소장본과 36행본은 묘법연화경을 ‘法’ 또는 ‘法華’로 축약한 약서명과 권차와 장차로 구성되어 가장 정형적인 판수제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고려에서 선초 사이에 간행된 법화경 판본 중 17자본을 대상으로 고찰한 결과, 판행수 및 판수제 형식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판본의 유형과 계통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식별 기준을 참고하게 되면 이 시대에 간행된 판본의 분류와 간년 추정에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大觀：宋板圖書特展』. 臺北：古宮博物院, 2006.
- 『東アジアの仏たち』. 奈良：奈良國立博物館, 1996.
- 葉德輝 著, 박철상 옮김. 『書林清話』. 서울: 푸른역사, 2011.
- 中國國家圖書館 編. 『國家珍貴古籍名錄圖錄：第1-3批』.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0.
- 朴桃花. “朝鮮 前半期 佛經板畫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7.

書誌學研究 第59輯(2014. 9)

1-376.

宋日基. “守國寺 木造阿彌陀佛坐像의 腹藏典籍 研究.” 『書誌學研究』 58(2014. 6). 119-146.

宋日基. “蘇州 瑞光寺塔 出土 北宋初期 佛教文獻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5권 제1호(2014. 3). 81-102.

宋日基. “開運寺本 晉本華嚴經 卷33의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51(2012). 359-385.

宋日基. “靈光 佛甲寺 腹藏本 『妙法蓮華經』 卷3의 刊年問題.” 『書誌學研究』 48(2011. 6). 83-130.

宋日基. “開運寺本 阿彌陀佛 腹藏本 華嚴經 研究.” 『書誌學研究』 47(2010). 23-56.

鄭王根.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2012. 8. 1-275.